

과연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점들'인가

민형원교수의 「아도르노사상」 서평에 대한 저자의 자기변론

김유동

경상대 교수 · 철학

독일철학 전반에 대한 폭넓고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의 저서 중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해준 서평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 또한 주례사에 그치고 마는 것이 보통인 우리나라의 서평 풍토 속에서 '실천' 문제와 '에세이적 글쓰기'라는 본 저서의 핵심문제에까지 들어가, 서평자가 필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적인 국면까지 조목조목 지적하는 철저한 학문적 자세에 존경심을 가진다. 그렇지만 서평자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들"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필자로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오해를 해명할 필요성도 느껴서 자기변론의 글을 쓰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

'가상'이라는 관념을 예술영역에만 국한해서 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서평자의 첫번째 지적에 대해서, 아도르노의 역사철학·사회이론·인식론을 다룬 제1부에서도 가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필자는 이 가상 개념을 주로 예술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가상 개념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이데올로기비판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필자 자신도 인식론이나 사회이론에서의 이데올로기비판을 곧 가상비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아도르노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꺼렸던 것처럼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분별하는 것은 개념들 속에 가두어버려 表象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개념이 개념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필자도 어떤 개념이 나올 때 이전의 사용방식과 다른 아도르노의 사용방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그 개념의 아도르노적인 사용맥락을 설명은 했으나 명확히 정의내리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가상이라는 개념과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필자의 견해로는, 가상이라는 개념이 좀 더 느슨하고 뉴앙스가 많아 예술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아도르노적인 용어인 반면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좀 더 엄밀하고 공격적이어서 인식론이나 사회이론에 더 적합하여 사회이론에 더 비중을 두는 하버마스적인 용어라고 생각한다. "아도르노의 인식론과 사회이론을 일종의 이데올로기비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서평자의 권고는 아도르노를 하버마스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두번째로 지적한 '실천'에 관한 문제는 아도르노 사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관건일 뿐 아니라 모든 사상이나 개개인의 삶에서도 궁극

적인 문제일 것이다. 필자는 우선 "아도르노가 어떠한 실천도 거부·포기했다"라는 문장을 명시적으로 쓴 적이 없음을 환기시키고 싶다. 아도르노 자신도 '특정한 부정'으로서의 사유나 글쓰기라는 실천은 행했다. 근대 이후 '실천' 개념은—실천 개념 자체도 근대의 산물이지만—"진정한 인간적인 삶을 보증해주는 이성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행위에 연관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화해된 미래세계"를 향해 역사는 나아가거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부르주아적 사고방식이건 프롤레타리아적 사고방식이건 전제된다. 아도르노의 '물락의 논리'는 분명 그런 낙관주의를 믿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그가 '화해된 상태'로 가는 구체적인 '길'이나 실천방법을 제시한 바는—서평자도 인정하듯이—전혀 없다. 아도르노는 어떠한 '화해'도—과거의 화해된 상태나 현재·미래의 화해된 상태—이데올로기로서 부인했지만 화해에 대한 갈망과 동경과 모색은 본 저서의 副題에서도 암시하듯이 아도르노의 근본 패토스였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아도르노는 실천의 당위성이나 가능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의 가능성은 상상 속의 가능성으로 역사현실 속에서 실제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되어 있는 가능성이다. '미래', '희망', '실천', '가능성', '화해'와 같은 관념들은 '좁은 의미의 사회철학'적인 분과를 넘어서는 미학의 본령으로서, 서평자의 "모든 실천을 다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는 '좁은 의미의 사회철학'적인 맥락에서는 틀린 명제가 될 수도, 미학적인 맥락에서는 맞는 명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때 위의 명제는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데올로기비판 재구성” 권유는 부적당

'실천' 문제에 대한 서평자의 의도는 세번째 항목에서 분명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아도르노의 비판주의가 '이성의 도구화'에 주목하고 이를 어쩔 수 없는 자연적·필연적 과정으로 인식했다면, 하버마스는 아도르노의 가상비판을 이데올로기비판으로 끌어들이지만 아도르노의 비판주의를 넘어 '이성'과 이를 위한 '실천'을 필사적으로 모색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이성'에 내재된 '의사소통적 계기'를 재인식하고 이를 가꾸어나가는 하버마스의 노력이었을 것이다. 지면의

제한 때문이었는지 모르나, 서평자는 본서에서 기술한 하버마스 비판—유럽중심주의와 소동이론이 의식철학의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론을 펴지는 않았다. 막연히 "하버마스의 이론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현재의 이론의 수준에서 본다면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문장은 서평자가 하버마스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아도르노의 세계관과 하버마스의 세계관 중 어느 누가 옳은가라는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론자들의 입장까지 덧붙여 계속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 할 때, 위와 같은 단정은 의사소통의 이론으로 의사소통을 열어 놓기보다는 성급하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다.

네번째, 미메시스와 보호색 Mimikry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평자가 지적한 양개념의 차이가 본능적인 하등동물이나 의식을 가진 인간의 차이를 지적하는 차원이라면 지금 당연한 것이나, 미메시스 개념을 "의식적으로 연출되는 대상과의 동화"로 보는 것은 이 개념에 대한 오해라고 본다. 이 오류는 '미학적 차원'과 '에세이적 스타일'에 대한 오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의식적으로 연출된 대상과의 동화'는 '기만적인 희생행위'로 그것은 이미 미메시스라 아니라 합리적 인식이다. 의식에 들어오는 부분은 개념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이를 넘어 나아가는 것이 '미메시스적 행태'인바, 이 양자의 운동관계가 '미메시스와 합리성의 변증법'이다. 미메시스는 따라서 '보호색'을 지향하는 것으로 두 개념 사이에는 서로 상반된 '질적인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번째로 아도르노의 '제2의 자연' 개념에 대해서, 필자가 이 개념에 대한 개념사적인 맥락을 상론함이 없이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에서 따온 것이다"라고만 언급함으로써 이 개념을 루카치에게서만 따온 개념으로 쓰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고 서평자가 지적했는데 그런 오해를 일으켰다면 개정판에서는 보완을 하겠다.

여섯번째로 서평자는 필자가 마르크스의 '자연' 개념을 후기 마르크스 사상의 입장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데, 자연으로부터 이탈하고 노동과 분업을 행하면서 인간이 겪는 소외와 고통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기술하는 「경제·철학 수고」의 자연

관념이 후기의 자연관념과는 다르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마르크스 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입장은 자연착취의 계기인 생산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위에서 자본주의라는 현재 상태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을 옹호하는 후기 사상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두 상반된 자연관 중에서 "인간의 부활은 자연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초기의 입장이 마르크스의 자연관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이 초기의 '자연관'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곱번째 문제로서, 필자에게 '체계적 정신'이라는 용어가 낯설고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체계'라는 단어는 극심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기왕의 합리적 인식이 도달해낸 수준을 감당하면서 기존 세계에 대한 '구도 Konstellation'와 '구성 Konstruktion'을 만들어내려는 정신에 대해 '체계적 정신'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필자는 충분히 동의한다.

“명료한 개념으로 치환할 수 없는 것도”

서평자는 결론에서 '에세이적 집필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아도르노는 결코 비합리주의자는 아니지만 합리적 인식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 너머에 있는 '타자'나 '비동일자'를 동경한다. 이러한 '비동일성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논술적인 정신'의 반대극에 있는 '문학정신'이나 '음악정신', '합리성'의 반대극에 있는 '미메시스', 합리적 이성이 도달한 결론을 전부 수용하면서도 그 너머의 '동일화할 수 없는 무엇', 즉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말 뒤에 남는 그 무엇'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념적 인식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술의 세례가 필요할 것이다. 포스트모던한 영화 「차이나 타운」처럼 아도르노 사상이나 이에 대한 필자의 저서도 서평자가 아쉬워하는 '논리적 긴장' 속에서 명료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베일을 벗기면서도 더 깊은 베일을 드리우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니체의 '자유정신'처럼 학문하는 것이 베일을 벗기는, 즉 계몽 작업이지만 삶이나 세상에는 아무리 베일을 벗겨도 그 뒤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깊이와 심연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깊이나 심연은 '은유'나 '에세이적 문체'에 의해 예감케 할 수는 있으나 명료한 개념으로 치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